

마부작침

[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민 후, 여러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성형외과 전문의의 길을 걸어온 LA 드림 성형외과 Kenneth Kim 원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젊은 의사지만, 마부작침과 같았던 그의 과거와 현재, 성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길래 공부를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이 나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머리가 좋은 천재가 절대 아니다. 너무 힘들었던 의대시절, 놀면서도 시험을 잘보는 동기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머리가 좋았으면...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나에게 없는 달란트였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은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한다.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내 인생의 진짜 비결은 바로 성실함과 진실성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게 한 힘이다.

제1막 노력, 노력, 노력.....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어린 마음에도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 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의 부모님과 형제, 또는 나같은 한국계 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나는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온 그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또한 나는 이 때 인생의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수구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부끄럽지만 내가

수구팀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친구가 수구팀에 들어가면 여자친구를 사귄 수 있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순진했고 단순했다. 수구팀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비록 여자친구를 주진 못했지만 나의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생활을 위해 힘들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뭔지 모를 화가 났고, 내가 수영과 수구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화가 났다. 당시 수구팀 코치는 수구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영을 잘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수영은 정말로 지루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하기 싫다고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법. 나는

다른 멤버들이 연습을 끝내고 간 뒤에 따로 남아서 수영 연습을 하고 공 던지는 연습도 하는 등 남보다 두 배 이상 훈련했다.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전미 청소년 대표 수구팀의 멤버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UC 버클리에 입학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할 때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버클리에에서의 생활은 지루한 나와와 싸움이었다. 나는 학교가 "배움을 얻는 곳"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는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 교수님들은 그 과정에서 나아가야 할





제 2막 **사는 게 즐거워졌다**

방향을 제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체육관에서 근육운동을 할 때와 비슷하다. 누가 나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기구를 들고 내려놓고 당기고 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육을 발달시킨다. 체육관 코치는 그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알려줄 뿐이지 내 근육을 발달시켜주진 못한다. 결국엔 모든 것이 나와 싸움이다. 학교란 그저 인생을 위한 훈련 장소일 뿐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버클리에서의 훈련을 혹독하게 치렀다. 한 예로, 나는 매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있기 2 주 전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있었다. 마지막 2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질려서 나에게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하루 하루가 지날 수록 나는 점점

더 공부에 질려갔다. 드디어 시험 날이 되면, 나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의 힘으로 시험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한 뒤에 의대에 진학하였다.



에일 의대에 진학하면서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했다. 의학의 분야에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튼튼한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안전한 길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길, 두 가지가 있었다. 후자는 힘들어 보이고 도전이 많은 것 같았지만 웬지 더 재밌을 것 같았고 흥미로워 보였다. 이전까지의 나의 학교생활은 하기 싫고 힘든 공부를 엄청난 노력으로 이겨왔었기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그러나 에일에서의 시간은 비록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기서 인생의 또다른 큰 교훈을 깨닫게 된다. 비로소 내가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좋았고,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았으며, 창조적인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운명처럼 성형외과를 선택했다. 의대생들은 보통 의대에서 의과과정만을 공부하고 바로 인턴 훈련으로 직행한다. 그러나 나는 에일대에서 하워드 휴즈 장학금을 받아 하워드 휴즈 의학 기관에서 1년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워드 휴즈 의학 기관은 노벨상 14명을 배출시킨 의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나는 의대에서 배운 성형외과를 좀더 깊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형 수술 후의 조직 재생과 치유 과정에 대해 연구했다.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는 1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에일대를 졸업 한 뒤 레지던트 기간 중에도 계속 연구를 지도하여 총 9년간의 연구로 Gene 학회지에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나는 좋은 성형외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다양한 수술 분야를 제공하고, 특히, 미용과 재건 분야가 뛰어난 노스웨스턴의 7년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나이가 많은 외과의사와 함께 어떤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 수술 도중에 갑자기 환자의 목에서 피가 났고, 그의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피를 멈추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피를 멈춰보라고 소리쳤지만, 나 또한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또다른 외과의사의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피를 멈출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외과의사에게 잘 훈련된 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과의사의 손은 동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뇌가 원하는 곳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했다. 나는 내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처럼 나는 나를 끊임없이 연습시키고 훈련시켰다. 병원에서 일이 없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나는 집에 돌아와서 실 뭍는 연습과 수술 도구를 다루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 휴일에는 다른 의사에게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4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찾아가기도 했다. 성형외과의사가 된다는 것은 **"독수리의 눈과 사자의 심장과 숙녀의 손을 가진 외과의사"**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심미를 가져야 했고 운동선수처럼 모든 신경과 근육이 잘 조화되어야 했다. 훈련 과정 동안 나는 내 손이

나의 일, 나의 사명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길 원했다. 외과의사는 수술도구를 가지고 일하는데, 나는 이 도구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수단이 되기를 바랐다. 외과의사에게 수술도구란 전쟁터의 무기와 같아서, 만약 새로운 기구들이 개발된다면 수술이라는 전쟁터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스위스로 가서 수술기구 개발 연구를 위해 1년을 투자하여 최소 침습 수술 도구법에 대해 공부했다.

훈련이 끝난 뒤, 나는 각 성형분야로 유명한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현재 개발된 성형술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노력했다. 브라질과 일본에서의 가슴확대술이 그랬고, 캐나다의 가슴축소술이 그랬다. 또한 한국에서의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배운 것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온 나에게 특히 의미깊은 경험이었다. 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성형전문의들을 많이 만났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동안 같이 씨름하면서 깊은 감동을 얻었다. 살아온 곳이 다르고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수술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통하는 점이 있었다. 그들은 후에 내 친구들과 스승님들이 되어주셨다.

즐거울 수도 있지만, 목적지가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편하게만 살아왔다면 알 수 없었을 귀중한 깨달음이다. 어렵고 도전해야 하는 길로만 걸어오면서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늘 자신을 훈련시키며 어렵게 사는 것에 단련이 되어 그런지, 나는 행복을 아주 단순한 것에서 찾는 능력이 생겼다. 나의 일상은 좋은 음악이나 책, 평화로운 거리 풍경을 보는 것 같은 단순한 것들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것 또한 인생의 감사한 선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

'오늘은 더 잘 해야지.' 내가 매일 아침 같은 출근길을 나서며 하는 다짐이다. 매일 만나는 환자들에게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한국계 이민자들이다. 나와 내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 과감하게 도전을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성형이라는 것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다는 점에서 이민을 오게 된 동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타국생활에서 치열했던 환자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형을 통해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잘 하고 싶다.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때 순간이 나의 인생에 특별한 기쁨이 되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이제는 의사로서 나의 일이 이민자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 일을 즐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제 3막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나의 의술이 그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그 꿈을 위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했고, 의사가 되었다. 성형외과라는 분야는 힘들었던 교육과정을 보상해 주듯, 나에게 즐거운 도전의 연속이다. 나와 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성숙했고 여유로워졌다. 주위를 돌아보니 나뿐만 아니라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다 상이 아닐까 한다. 힘들 수도 있고

